





#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교육자들이 받아안은 최상의 특혜

## 크나큰 행복과 기쁨속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새집들이 시작

【평양 10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화려하게 일떠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서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또 하나의 경사가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 건국의 조형예술화가

훌륭히 구현되고 생활상편의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멋쟁이사람집에서 교육자들이 사회주의부기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위원회 위원장, 차회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시안의 대학 일군들, 교원, 연구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이 높이 솟아오른 초고층살림집 마당으로 이사짐을 실은 자동차들이 련이어 들어섰다.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머니의 크나큰 축복을 받으며 새 집으로 들어서는 집주인들, 이사짐을 나르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학생들로 명절처럼 흥성이었다.

설치할 집속구의 개수에 이르기까지 마음 쓰시며 온갖 정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이 어려여었다.

에도 좋고 쓰기에 편리한 찬장, 책장, 쓰파, 침대 등 고급가구와 비품들을 그르하게 갖추어 놓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성을 우리를수록 지금도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정수리에는 나라도 많고 교육자들도 많지만 어머니당의 품에 안긴 우리들처럼 높고도 보람찬 삶을 누리려는 교육자들은 없다.

교원, 연구자들을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공진같이 꾸러진 방들에서 사회주의 문명을 마음껏 누리며 과학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모든 조건들을 다 마련해주는 당의 품이야말로 우리 지식인들의 진정한 어머니품이다.

1학년 4층 3호에 새집들이를 한 연구사 위룡환은 말하였다.

예로부터 우물 좋고 정자 좋고 다 좋은 집은 없다고 하였지만 우리 과학자들을 금방씩에 얹혀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내세워 주려는 우리 당의 사랑에 떠받들려 바로 이렇게 대동강변의 명당자리에 최상급의 살림집이 일떠서게 되었다.

하늘같은 그 은덕을 영원히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과 대외중시정책을 충직하게 만드는 길에 한생을 다 바쳐나가겠다.

볼수록 희한한 집들을 한달란시에 받아안은 환희와 격정에 넘쳐 교육자가족들은 드넓은 살림집마당에서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춤판을 펼쳐놓았다.

현대적인 살림집들에 새집들이를 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당의 은정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에 내세워 지어올려 지식경제시대의 선도자, 최첨단 돌파전의 기술들을 더 많이 배우고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려갈 불타는 열의를 가다듬었다.

지금 우리 대학의 교육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초고층살림집들에 새집들이를 하느라 명절처럼 흥성이고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그림같이 화려하게 일떠선 살림집들에 입사하면서 격정을 금치 못하는 교원, 연구사들을 대할 때마다 얼마전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다가 가슴뜨겁게 어려와 심장이 새차게 높뛰곤 한다.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의 얼마나 크고 따사로운가를 그대로 글로 적으면 하나의 서사가 될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큼니다.》

얼마전 저는 완공된 우리 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보시게 위하여 전지애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다가 가슴에서 뵈음계 되었다.

만면에 태양같이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저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개 호동의 46층짜리 초고층살림집을 만족하게 바라보

시며 대동강에 떠있는 듯배같다고, 외벽에 열선반사관유리까지 씌워 준 정말 멋있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살림집을 돌아보는 전기간 저는 우리 대학에 대한 그이의 오랜 시간에 걸쳐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보시며 미배과학자리를 더 훌륭하게 꾸릴 방도를 가르쳐주시고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당의 도에 맞게 완공된것만큼 새집들이를 빨리 하라고, 교원, 연구사들에게 새 집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가정방문을 하시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주시었다.

민음과 사랑에는 충정과 보답이 따르미련이다.

지금 우리 대학 교원, 연구사들의 열의는 하늘에 닿았다.

다음으로 정해졌던 중요연구과제들을 올해중으로 끝내겠다고 결기해나서고 새집들이를 하자마자 멀리 들끓는 대고조전투장으로 달려나가 낮에 밥을 이어 사색과 탐구를 하고있는 교원, 연구사들도 적지 않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생생보다 더 귀중히 간직하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놀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는 당대한 기성과 민족자존의 정신을 체질화한 지식경제시대의 선도자, 최첨단돌파전의 기술들을 더 많이 키워내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갔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홍서현

세집들이와 더불어 대동강변에 펼쳐진 환희로운 명절분위기는 하늘을 찌를듯 아찔하게 솟아오른 초고층살림집으로 들어서는 우리의 마음도 끝없이 설레게 하였다.

외형부터가 특색있게 건설된 살림집의 내부는 또 얼마나 황홀할것인가. 이런 흥분을 앞세우며 우리는 1학년 1호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후대들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금방씩에 얹어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내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입니다.》

집주인인 머릿핀 로교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니 첫눈에 신발장과 벽거울, 판웃결이가 안겨왔다.

어저 그뿐이랴. 매 살림방들에는 방의 모양과 크기에 알맞

는 침대, 옷장, 책장 등 살림살이와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고급가구가 일식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말 그대로 맨몸으로 들어와 살아도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을것 같았다.

벽체를 장식한 고급벽지의 은근한 색감 역시 가구의 색과 조화롭게 어울려 집안은 무척 아늑하고 따뜻한 감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모든것이 훌륭한 살림집에 입사한 머느리의 감정은 류말랐다.

《금세 새 집에 들어서니 부엌에 이렇게 가스코너는 물론 가스스토브까지 마련되어있는것이였습니다.》

주부들의 섬세한 마음까지도 다 총총시킬수 있는 가시대와 조리대, 배풍기도 훌륭하였지만 부엌창고의 가스통들을 보

고는 더욱 놀랐다고, 어머니당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구석구석까지 다 헤아려 줄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격정을 토로하는 그의 이야기는 정녕 끝이 없을상싶었다.

돌아볼수록 너무나 희한하고 황홀하여 찬란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은 우리는 인민과학자이며 교수, 박사인 한병준동무와 마주앉았다.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에서 싸운 그는 현재까지 60년을 대학교원으로 일하고있었다.

그 나날의 은정속에 아들 셋이 다 과학자, 교육자로 자라났고 머느리까지 교육자이므로 하여 가정의 자랑도 남달랐다.

《너무도 꿈만 같이 이런 궁결같은 새 집을 받아안고보니 정말 잠이 다 오지 않습니다. 해

보시였던 46층 1호집에 올라가보았다는것이였다. 발밑으로

로는 대동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탁 트인 눈앞에는 온 평양시, 아니 온 세계가 안겨와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그날 우리 집안이 받아안은 행복의 높이에 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할 이 크나큰 행복의 높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답해야 할 실적의 높이라는것을 다시금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은 세상 만물이 다 갖는 은정 어린 보금자리에서 자라는 보금의 맹세는 이렇게 뜨거웠다.

이것이 어저 그의 심정이라고만 하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세계를 굽어보는 행복의 상상봉에 오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들도두의 한결같은 심정의 목소리였다.

본사기자 한 경 철

# 세계를 굽어보는 행복의 집

### 한생을 후대교육사업에 바쳐가고있는 전정로병 한병준가정을 찾아서

는 침대, 옷장, 책장 등 살림살이와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고급가구가 일식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말 그대로 맨몸으로 들어와 살아도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을것 같았다.

벽체를 장식한 고급벽지의 은근한 색감 역시 가구의 색과 조화롭게 어울려 집안은 무척 아늑하고 따뜻한 감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모든것이 훌륭한 살림집에 입사한 머느리의 감정은 류말랐다.

《금세 새 집에 들어서니 부엌에 이렇게 가스코너는 물론 가스스토브까지 마련되어있는것이였습니다.》

주부들의 섬세한 마음까지도 다 총총시킬수 있는 가시대와 조리대, 배풍기도 훌륭하였지만 부엌창고의 가스통들을 보

고는 더욱 놀랐다고, 어머니당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구석구석까지 다 헤아려 줄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격정을 토로하는 그의 이야기는 정녕 끝이 없을상싶었다.

돌아볼수록 너무나 희한하고 황홀하여 찬란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은 우리는 인민과학자이며 교수, 박사인 한병준동무와 마주앉았다.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에서 싸운 그는 현재까지 60년을 대학교원으로 일하고있었다.

그 나날의 은정속에 아들 셋이 다 과학자, 교육자로 자라났고 머느리까지 교육자이므로 하여 가정의 자랑도 남달랐다.

《너무도 꿈만 같이 이런 궁결같은 새 집을 받아안고보니 정말 잠이 다 오지 않습니다. 해

# 사랑의 보금자리에 넘치는 보람의 맹세

### 중년의 보고만들!

내가 과연 이런 황홀한 집에서 살게 되였다는것이 도무지 꿈만 같이 입사하기 전부터 며칠동안 한잠도 자지 못하였다.

지방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어서 빨리 평양으로 떠나겠다고 전화를 하였다.

집주인을 오셨다는 사람들이 친척들과 제자들, 이웃들을 비롯하여 수백명이나 되어 인헤와 말이 일일표까지 짜고있다. 사업업대로 다른 나라에 여러대동나갔던 나로서는 백만장자

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과학연구사업에서도 높은 실적을 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

다. 당면하여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석탄절약을 위한 연구사업에 온 심혈을 다 쏟아부어 올해중으로 마무리하며 가까운 앞날에 우리 대학을 세계일류급 대학으로 만드는 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동력공학부 강좌장 박사 부교수 리영찬

대를 이어가며 우리 교육자안해들의 마음까지

지 속속들이 헤아려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할지 눈물부터 앞섰다. 부엌창고문을 여는 순간 새 가스통들이 들어있는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불만 달면 음식들을 해먹을수 있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준 어머니당의 세심한 사랑을 한생도록 잊을수 없다.

조파며 책장, 식탁 등 고급가구들과 방마다에 갖추어져있는 훌륭한 창가림들을 비롯하여 모든 생활조건과 환경이 너무나도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져있어 물레 손등을 꼬집어보았다. 내 집 앞방에도 당신의 사랑이라는 뜻 깊은 노예구절이 머속에 떠오른다.

앞으로 교육자의 안해답게 남편이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며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공부하는 아들 딸들도 잘 키워 대를 이어가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해나가도록 하겠다.

2학년 45층 3호 김 춘 화



#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가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일거일동을 특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 북 남 고 위 급 접 촉 북 측 대 표 단 성 명

최근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분위기가 피피포수회담의 도발적당풍으로 다시 급격히 얼어붙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0월 4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둔 우리 선수들을 고무해주고 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일행은 남측《국무총리》, 청와대《국가안보실》실장, 통일부 장관 등 고위관계자들을 만난 기회에 북과 남이 인천에 모여 하나가 된 좋은 분위기를 잘 살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큰걸음을 내디디고 하면서 북한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2차 고위급접촉을 10월말 또는 11월초 편리한 시기에 개최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의 성과가 크지만 그것은 아직 오솔길에 지나지 않으며 서로 자주 오가면서 오솔길을 대로로 만들어 북남관계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남측관계자들은 우리의 의견에 적극 지지찬동하면서 이번 경기대회기간 북과 남이 서로 손잡고 응원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앞으로 당국자들도 서로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 앞장설것을 약속하였다.

북남당국자들의 인천만남은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일으켰으며 온 겨레와 전세계는 북남관계개선의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그 좋은 분위기는 사흘도 못가 피피포대에 의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다.

피피포대는 지난 7일 서해염점수역에

서 우리 함정에 총포사격을 가하여 군사적충돌사태가 빚어지게 하였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배라살포를 강행하여 우리를 참을수없이 자극하였다.

15일부터 서유럽을 행각한 남조선전진자는 국제회의에서와 여러 《경상》들을 만나 우리에게 대해 《핵》이요, 《인권》이요, 《주민생활》이요 뉘오 하며 시비하는 극악한 발언을 제쳐서 우리 인민들의 분격을 더욱 불렀다.

18일과 19일에는 피피포부관들이 편이어서 군사분계선 우리측 지역에서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인들에게 마구 총질을 해대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여 쌍방사이에 위험천만한 총격전이 벌어지게 하였다.

피피포대는 사태수습을 위해 우리가 긴급접촉을 제의한데 대해서도 이 피피포 지피탈 시간을 끝까지 미루고서 풀려나와서 마구 총질을 해대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여 쌍방사이에 위험천만한 총격전이 벌어지게 하였다.

인천에서의 만남이후 불과 보름사이 벌어진 이 경악스러운 사태는 지금 세상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고있으며 온 겨레를 크게 실망시키고있다.

피피포대의 도발적당풍들은 우리의 커다란 노력에 대한 도전이고 모독으로서 남측당국자들이 우리와 한 약속이 과연 진실이었는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총정치국장일행의 인천 방문때 우리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성의를 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북남관계개선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높은 급인행을 인천에 전격적으로 파견하시고 그 기회에 남측의 당국관계자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진정을 전하도록 하시었다.

남측당국자들은 그에 대해 거듭 사의를 표하면서 자기들도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는 인천방문후 즉시 비방중상도 일체 중지하였고 군사적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적극 강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와 상반되게 남측의 태도에서는 달라진것이 전혀 없었으며 대결적인 동과 행태는 더욱 우심해졌다.

오늘의 현실은 그대 남측당국자들이 우리에게 한 말이 다 가시고 빈말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3일도 못되어 불질을 하고 배라를 뿌리며 망발을 제치는 것과 같은 행위를 그처럼 거침없이 할수 있었는가 하는것이다.

더우기 간파할수 없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도발은 지들이 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대해 《도발》이니, 《항면전색》이니, 《이중성》이니 뉘니 하면서 악정을 동고고 하는것이다.

지어는 우리가 북남관계에서 《기선잡기》와 《주도권확보》, 《협상지위강화》를 위해 《도발》하고있는것이 떠돌이대우의 머리에 전정의 제안을 몰아

오는 위험천만한 도발놀음이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발발하는 피피포대에게는 예상사로 될지 모르지만 민족을 최우선, 최중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도발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피피포대의 망발은 불을 지른 놀이 불이 가 하는 격의 파멸적인 추태로서 저들의 도발적당풍을 가리우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비열한 꾀변이다.

남로 협약하게 번져가는 현 사태의 배후에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과 국유보수세력들이 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지금 미국과 국유보수세력들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대화를 파탄시키며 정세를 극단적과격으로 되돌려세우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인간쓰레기들이 배라살포에 그처럼 피눈이 되어 날뛰는것도, 피피포부호전관들이 총포탄을 마구 쏘아대면서 도발사건을 편이어서 일으키는것도 미국과 국유보수세력의 부추김에 의한것이다.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한층도 못되는 인간쓰레기들과 피피포당국자들의 만행에 의해 깨지고있는것은 실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북남관계가 내외의 반동일세력에 의해 통탄되는 사태를 더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

배라살포는 곧 전쟁행위로서 그것이 강행되면 소말전투가 응당 벌어지게 될것이고 고도로 예민한 특지와 해상의 립지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걸잡을수없이 불과, 철과 철이 맞부딪치는 전면전으로 번져지게 마련이다.

이번의 사태는 그 위험성을 특특히 보여

주었다.

전쟁은 반드시 예고하고 일어나는것이 아니며 모략배라 한장, 총탄 한발에 의해 서도 터질수 있다는것을 인류역사는 기록하고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가장 험악한 군사적일점지역에서 거듭 무모한 도발을 걸어오고있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한 약속대로 과연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수 없다.

현실은 일말이 아무리 노력하여 좋은 합의를 이룩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화답이 없으면 모든것이 무용지물이 되고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비단 오늘의 사태만이 아니라 북남관계의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도 그렇게 되어서 서명일기도 마르기 전에 백지화되었고 북남수뇌분들에 의해 마련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정권》교체가 되기 바쁘게 민중이장으로 되고말았다.

이번 인천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진 당국자들사이의 약속도 역시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남조선당국은 이번 인천방문에서 보인 우리의 통근 결단과 야망, 성의있는 노력을 함부로 우롱하고 모독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안적이고 편협한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누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며 북과 남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

잘못 써온 북남관계력사를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써나가는데서 당국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국자들의 의지가 확고할 때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었다.

남측당국자들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풀고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분위기를 해치고 대세에 역행하는 도발적당풍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와 《합박》의 《두길전략》이니 뉘니 하는것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을것이며 그로 하여 차폐질것은 자멸뿐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의 불씨를 살리느냐 아니면 대결이 최극단으로 치달아올라 전쟁의 불씨로 번져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지금이야말로 말보다 실천적행동으로 시대와 민족, 력사앞에 자기의 진정성을 검열받아야 할 때이다.

남조선당국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충돌을 불러오는 도발행위를 막기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일정에 올랐는 2차 북남고위급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고 하면서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도발도 무조건 정벌로 단호히 짓밟아버릴것이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이고 대결적인 광란으로 북남관계가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 처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당국자들자신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가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일거일동을 특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주제103(2014)년 10월 22일 평 양

#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 동창단체신소 우원통신원 백옥보동무의 소행에 대한 각계의 반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헌신성,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

는 혁명과 건설이 참된 주인공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품위를 규정하는 성격적 특징을 이루고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누가 보전발전, 알 아주전발전 말은 혁명초소를 성실하게,

책임적으로 지켜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당보에 실린 기사 《평범한 인생길에 새겨주는 참된 삶의 진리》의 주인공인 동창단체신소 우원통신원 백옥보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당과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의리심을 안고 자기 맡은 일을 광선적으로 책임적으로 하는 여기에 진정한 애국이 있고 참된 삶의 영예도 있다는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며 사람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김정숙영양제사공장 담세포비서 차진경은 백옥보동무에 대한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같은 당세포비서이고 녀성이어서 그런지 한 달음에 달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심정이다.

연료가 없어 우원통신차가 멎어섰을 때 백옥리 떨어진 철도옆에 있는 백옥보동무 우원통신원 들모두가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옹호자, 관철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 그의 모습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훌륭한 정치사상이요 언어였다.

우리는 백옥보동무처럼 당의 사랑과 은리에 보답할 일임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더 많은 천을 짜내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이 바치겠다.

본사기자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초병으로 맹렬히 뛰는 사업에서 한치의 빈구석도 허용하지 않았다.

폭우가 쏟아지고 눈내리는 날이면 물기가 스며들세라 가방안의 출판물은 물론 가방까지 비닐로 꼼꼼히 감쌌고 개인 날에도 불의의 정황을 예견하여 언제나 비닐을 가방에 넣고있던 그의 높은 책임성은 얼마나 돋보이는것인가.

자세로 590여개의 우원함들을 만들어 당부구역의 주민들을 출근시켜주는 백옥보동무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다.

하루에도 수십리틀 오가며 출판물을 배회해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당보에 실린 기사내용을 남김없이 학습하고 해설시킨다는 사업을 적극 벌이는 백옥보동무를 가리켜 사람들은 우리 선연인이라고 불렀다.

그의 높은 정성세계에 나 자신을 비추어보게 된다.

백옥보와 나!

이렇게 문제점을 세우거나 내 남을 되새기거나 저도모르게 얼음이 붙어진다. 제때에는 지금껏 선동원으로 사업하면서 그래도 무엇인가 좀 했었다고 은근히 자부하고있었는데 백옥보동무가 지닌 사상정신세계의 높이에 이르자면 이렇다.

남을 가르치고 교양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요구성부터 높이며 백옥보동무처럼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뜨거운 인성미로 군중을 이끄는 당조급진일꾼이 되겠다. 매일같이 백옥보동무의 정성세계와 일본세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일해나감으로써 능동적인 노동자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당의 무장하고 일복준사태에 떨쳐나서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겠다.

본사기자

# 혁명적의리에 충실하고 공민적의무에 몇몇하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함광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백옥보동무는 언제나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줄 아는 의리심을 안고 생의 자욱자욱을 아름답게 수놓아왔다.

부모뉘는 남편의 친아버지가 되어주고 가정의 시아버지가 되어준 당의 품, 이 땅의 천만사식들을 한몸에 안아 운명과 미래를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위대한 우리 당의 고마움과 귀중함을 심장깊이 간직했기에 백옥보동무는 40여년을 한결같은 한모습으로 살아오수 있었다.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던 그 나날 인민근부들을 현시살하시는데 위대한 장군님의 영성을 모신 당보를 손에서 놓으면 장군님과 떨어질것만 같이 일술을 사를수록 다시 일어선군 하던 그의 정성세계는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당과 수령의 은혜를 잊고 생을 다 바쳐 보답하려는 그의 높은 정성세계에 비추어보며 새로운 결심을 다지게 된다.

언제나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역세게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혁명명도의 전기가 단추처럼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명칭과 친히 안겨 주신 혁명의 불꽃불그리고 뜻깊게 제정된 청년절과 청년의 이름으로 빛나는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다.

우리 청년들은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당기를 따라 《조선청년동맹전적》을 힘차게 부르면서 강성국가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구장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다.

전력공업성 국장 고성진은 백옥보동무와 같은 의리의 인간, 향심의 인간들이 있어 우리 조국이 강할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울리는 이 땅에서는 그 날그리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고 하면서 부모뉘는 아이들을 때려다 친자식처럼 돌봐주는 백옥보동무, 품어주고 키우준 고마운 품에 조그마나마 보답하려는 혁명적의리에 충실하고 사회와 집단, 나라와 인민앞에 지닌 의무에 몇몇하려는 그의 열렬한 헌신의 모습앞에 머리가 숙여진다.

참상가운데서도 가장 귀중한 것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아안

은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순결한 마음이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깨끗한 향심을 지니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고 빛날수 있는것을 백옥보동무는 자기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맺은 정,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충정과 의리를 피뉘쳐온 간직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짐을 남에게 걸지않는다는 참된 혁명적인생관을 체질화한 일꾼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갔다.

중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정인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우원통신원, 우리 당세포비서, 우리 선동원, 우리 딸, 우리 어머니...

백옥보동무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인 이름으로 불리우는데는 근근바마는 무엇이었는가.

운명도 미래도 다 받아안아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충정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열도가 남달리 높았을 때였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온 헌신에 있다.

자신의 향심에 조용히 묻어보게 된다.

백옥 내에게는 우리로 불리우는 친근한 호칭이 있는가. 수도의 한계 구역의 인민생활

을 맡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며 일해왔는가를 들이켜볼수록 자책되는것이 많다.

인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부단히 사색하고 실천하는 일꾼, 이신작적으로 대우를 이 끌고 당정책관철에서는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모르며 인민들로부터 우리라고 불리우수 있게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었다.

강동구탄광관리합기소 지배인 김표철은 석탄은 빛과 열을 위해 자기를 장그리 불태운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백옥보동무는 한생을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 보석처럼 변심없이 한분세로 살아왔다.

우원통신의 길을 다니면서 김이 돌아있는 농장의 밭이랑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수 없어 김을 매고 하는 백옥보동무, 농장의 밭이랑에 난 작은 풀도 무심치 않게 살펴보는 그의 공민적향심의 눈으로 지나온 나날을 더듬어보게 된다.

가정에 집집을 기르며 생산한 질 좋은 기름을 농장들에 보내주곤 함이 모은 많은 량의 파취와 파비닐, 파지를 수질하여 지방합성공장에 보내준 백옥보동무처럼 불같은 애국의 마음으로 심장이 불타던가?

이신작적으로 대우를 이 끌고 당정책관철에서는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모르며 인민들로부터 우리라고 불리우수 있게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었다.

김정숙영양제사공장 담세포비서 차진경은 백옥보동무에 대한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같은 당세포비서이고 녀성이어서 그런지 한 달음에 달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심정이다.

연료가 없어 우원통신차가 멎어섰을 때 백옥리 떨어진 철도옆에 있는 백옥보동무 우원통신원 들모두가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옹호자, 관철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 그의 모습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훌륭한 정치사상이요 언어였다.

우리는 백옥보동무처럼 당의 사랑과 은리에 보답할 일임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더 많은 천을 짜내어 인민생활향상에 적극이 바치겠다.

본사기자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초병으로 맹렬히 뛰는 사업에서 한치의 빈구석도 허용하지 않았다.

폭우가 쏟아지고 눈내리는 날이면 물기가 스며들세라 가방안의 출판물은 물론 가방까지 비닐로 꼼꼼히 감쌌고 개인 날에도 불의의 정황을 예견하여 언제나 비닐을 가방에 넣고있던 그의 높은 책임성은 얼마나 돋보이는것인가.

자세로 590여개의 우원함들을 만들어 당부구역의 주민들을 출근시켜주는 백옥보동무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다.

하루에도 수십리틀 오가며 출판물을 배회해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당보에 실린 기사내용을 남김없이 학습하고 해설시킨다는 사업을 적극 벌이는 백옥보동무를 가리켜 사람들은 우리 선연인이라고 불렀다.

그의 높은 정성세계에 나 자신을 비추어보게 된다.

백옥보와 나!

이렇게 문제점을 세우거나 내 남을 되새기거나 저도모르게 얼음이 붙어진다. 제때에는 지금껏 선동원으로 사업하면서 그래도 무엇인가 좀 했었다고 은근히 자부하고있었는데 백옥보동무가 지닌 사상정신세계의 높이에 이르자면 이렇다.

남을 가르치고 교양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요구성부터 높이며 백옥보동무처럼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뜨거운 인성미로 군중을 이끄는 당조급진일꾼이 되겠다. 매일같이 백옥보동무의 정성세계와 일본세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일해나감으로써 능동적인 노동자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당의 무장하고 일복준사태에 떨쳐나서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겠다.

본사기자

# 특색있는 가구제품, 일용품도안들 창작

최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새로운 가구제품, 일용품도안들이 많이 나오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문명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지 산업미술창작단위들과 교육부문, 가구, 일용품생산단위의 창작가, 도안가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학생들은 산업미술도안창작사업을 활발히 벌리었다.

이 파장에 실용적가치가 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는 수많은 가구제품, 일용품도안들이 창작되었다.

당의 과학적, 교육적 지시에 사상에서 비롯하여 가까운 앞날에 일대일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들에 갖추어놓게 될 가구제품도안들은 우리 인민의 기호와 정서를 잘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다기능화된 가구, 조립식가구 등 세계적인 가구발전추세에 맞는 도안들이 인기를 끌고있다.

그가운데는 가정은 물론 학교와 기관, 기업소, 공공장소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되게 될 여러 가지 침대, 식탁도안들과 특별히 창작된 어린이용가구도안들이 있다.

건설건재공정성, 중앙산단미술지도국의 산하기관들과 대동강가구공장을 비롯한 단위들에서 내놓은 다기능화된 조립식가구도안, 기능성이동가구도안, 통합합작관조립식가구도안 등

은 실용성이 있으면서도 사용자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창작되었다.

산업미술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주체적민중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담은 숭고있는 일용품도안들이 창작되어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가정용전기밥가마도안, 탁상용선종기도안, 부엌의 간조도안 등은 우리 인민의 기호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이밖에도 민족적정서에 맞게 형성된 좌장품, 쌀이시게도안 등도 여러가지 형태의 신발도안들은 보다 문명해질 우리 인민의 생활을 그르롭게 하고있다.

특색있는 가구제품, 일용품도안들 창작

살림집들에 갖추어놓게 될 가구제품도안들은 우리 인민의 기호와 정서를 잘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다기능화된 가구, 조립식가구 등 세계적인 가구발전추세에 맞는 도안들이 인기를 끌고있다.

그가운데는 가정은 물론 학교와 기관, 기업소, 공공장소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되게 될 여러 가지 침대, 식탁도안들과 특별히 창작된 어린이용가구도안들이 있다.

건설건재공정성, 중앙산단미술지도국의 산하기관들과 대동강가구공장을 비롯한 단위들에서 내놓은 다기능화된 조립식가구도안, 기능성이동가구도안, 통합합작관조립식가구도안 등

은 실용성이 있으면서도 사용자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창작되었다.

산업미술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주체적민중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담은 숭고있는 일용품도안들이 창작되어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가정용전기밥가마도안, 탁상용선종기도안, 부엌의 간조도안 등은 우리 인민의 기호를 그대로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이밖에도 민족적정서에 맞게 형성된 좌장품, 쌀이시게도안 등도 여러가지 형태의 신발도안들은 보다 문명해질 우리 인민의 생활을 그르롭게 하고있다.

특색있는 가구제품, 일용품도안들 창작

살림집들에 갖추어놓게 될 가구제품도안들은 우리 인민의 기호와 정서를 잘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다기능화된 가구, 조립식가구 등 세계적인 가구발전추세에 맞는 도안들이 인기를 끌고있다.

그가운데는 가정은 물론 학교와 기관, 기업소, 공공장소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되게 될 여러 가지 침대, 식탁도안들과 특별히 창작된 어린이용가구도안들이 있다.

건설건재공정성, 중앙산단미술지도국의 산하기관들과 대동강가구공장을 비롯한 단위들에서 내놓은 다기능화된 조립식가구도안, 기능성이동가구도안, 통합합작관조립식가구도안 등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하여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우시군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하여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우시군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하여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우시군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 전국제염부문 과학기술 성과 발표회 진행

전국제염부문 과학기술성과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2일 은천군에서 진행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화학공업성 소금공업관리국, 국가과학원 제염연구소 등 과학, 교육기관, 제염부문의 교원, 연구사, 기술자, 박사원생, 일꾼들이 발표회에 참가하였다.

발표회에서는 당의 경제강국 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제염공업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파장에 이룩한 과학기술성과들을 보여주는 30여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본문발표자들은 나라의 제염공업을 발전시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결실한 성과를 올렸다고 자랑하였다. 이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소개한 발표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화학공업성 소금공업관리국 등에서 내놓은 논문들이 경제적인 가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참가자들에게는 중가 수여되고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원될 예정이다.

【조선중앙통신】

# 어버이사랑 넘치는 우리 《롱마》가 제일

##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통근버스 《평양 45-1629》호를 타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처럼 당과 수령, 국가의 보살핌속에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행복찬 삶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9월 12일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통근버스들이 수도의 거리거리를 누비고있다.

그로 하여 꽃피는 생활은 또 얼마나 행복하고 희망차라 하는 생각이 우리네 며칠전 아침 팜부거리리업구 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한 통근버스로선의를 출발지점으로 향하였다.

그곳에서는 벌써 멋지고 우람한 《평양 45-1629》호 버스차 좌문을 활짝 열고 종업원들을 맞이하고있었다.

얼굴마다 웃음을 한껏 머금은 방직공처녀들은 꽃발에 날아드는 나비마냥 나팔꽃을 춤을 추며 올랐고 나이긋한 종업원들은 이제는 구분이 되고도 남았을 차체를 찬찬히 훑어만지며 생각을 깊음에 옮겨놓았다.

우리가 버스에 오른 사연을 안 운전사 김순철동무와 종업원들은 너나없이 기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버스차량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크게 하고싶어 속이 막 뚫린 참인데 마침이라면서 우리를 반겨맞았다.

이제 버스가 출발하였다. 그것은 마치 땅우로 달리는것이 아니라 물우로 스프르르 미끄러지는듯 한 쾌감을 자아냈다.

우리의 심정을 알았는지 옆에 있는 방직종합직장 완성작업반 노동자 김진화동무가 《버스가 참 좋지요?》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자기 품에 안겨 푸르른 창을 향해 좋아라 손을 내젓는 귀여운 아들의 불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전에 타고다니던 통근버스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버스였습디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교대작업을 하는 방직공장종업원들의 출퇴근길을 넘겨하시어 여러대의 버스를 보내주셨었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만든 《평양》호통근버스를, 고난의 시기에든 변함없이 달린 그 버스에 방직공장사람들은 얼마나 깊은 정을 들였던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들에게는 그 버스를 한번안도 떨어뜨리지 못할 땅의 따사로운 손길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정의 설정을 해이

리시고 원래버스들보다도 품격 크고 현대적인 버스를 보내주시었다. 그것은 대를 두고 이어지는 친어버이사랑이였다.

가슴뜨거운 추억에 눈물을 흘리고나서 김진화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얼마나 빠르지 날개달린 롱마같습디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버스는 잠간만에 생생 달리 체속을 감촉시켰다. 그러면서 도간도간 지정된 정류소에 이르러 종업원들을 태우기도 하였다.

안산다리길을 지나 통일거리쪽으로 향하는 속에 버스안에서의 즐거움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새 통근버스들은 이 로선말고도 충신과 탐재 등으로 향하는 여러 로선들로 달리고있어 시인의 곳곳에서 사는 종업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출퇴근길에 오르고 있다는것이였다.

출근길의 통근버스가 먼길을 가깝게 만든 사랑의 롱마라면 퇴근길에 오를 통근버스는 종업원들의 행복의 꿈을 지키는 포근한 요람이라고 하는 종업원들 도 있었다. 퇴근을 보장하는 버스는 공장에서 자정을 넘어 떠나는데 목심한 의지가 없어있지만 저도모르게 슬픔이 잠들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매 종업원들의 집을 기억하고있는 운전사

들이 집가까이에 이르러 깨워준다. 퇴근길을 달리는 버스가 멎어서는 지점은 무려 스무곳이 넘지만 운전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달게 여기고있다. 방직공장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가슴속에 감동있고기때문이다.

뒤차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와 뒤돌아보니 직로종합직장 중비직장 로동자인 전금향동무가 혼자서 큰 말을 지루 품고있었다. 호기심이 동하여 그자판이내머로 바라다보니 그는 무엇인가를 위하는중이였다. 학습하는것이였다. 그와 같이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들이 버스안의 여기저기에서 보였다.

우리가 건너편에 앉은 한 방직공도 통근버스안에서는 공부하기가 좋다고, 참으로 훌륭한 학습장이라고 속삭임을 퍼놓았다.

기로동계급이 출퇴근길에 오르고 있다는것이였다.

《학습장론이 아닙니다. 버스에 설치된 롱마가 달린 텔레비전을 통해 모두 목청을 높여 토론방안하는 세 노래를 해를 올 때를 문화예술보급지점이요, 월계관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장의의관을 놓고 저마다 일이 올라 토의할 때 갈래 없는 기술혁신전쟁마당입니다.》

말없이 이어지는 진정의 토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

신 사랑의 통근버스들이 불과 한달동안에 그들의 생활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잡았는가를 말해 주고있었다.

격동된 우리 가슴을 울리며 경쾌한 경적소리가 다시 울렸다. 어느새 공장에 당도하였다.

종업원들이 서둘러 버스에서 내려 자기 직장, 작업반들로 총총히 걸어들었다.

그들을 바래주는 우리의 눈앞에 공중버스의 끝방이 안겨왔다.

《장기전열일까지 4년분 계획완수자 2명, 3년분계획완수자 3명, 2년분계획완수자 29명, 년간계획완수자 294명 배출!》

레닌에 없는 성과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거룩한 자욱이 어린 공장을 찾았어 평범한 로동자들의 작업모습도 친히 보아주시고 대동간방이 완하도록 공평같은 로동자합성을 일깨워주시였으며 통근버스까지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이 안아올린 눈누니 기적이였다.

어버이사랑 넘치는 우리 롱마가 제일이다.

통근버스안에 넘치던 환희와 열정이 가슴에 되새겨졌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이 펼쳐가는 기적과 혁신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가슴뜨거운 화폭이였다.

본사기자 허명숙

말없는 스승, 생활의 길동무

개천지구관  
광원합기업소  
지강도공급관관 지배인 조준남동무는 누구보다도 일욕심이 많은 일꾼이다. 그의 머리속에는 한평생을 석탄 생산에서 후방사업에서 손꼽히는 몇몇인단위로 일떠세울 구상과 계획들이 가득차 있다.

이러한 전망계획을 실현하는 데서 조준남동무가 의거하는 길동무는 바로 책이다.

인민대학습당 12호 열람실

우 리 열 성 독 자

기초교육사업에 맡은 리태일 동무는 뛰니뛰니해도 자료원천이 풍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최신과학기술성과들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있다.

자기자신부터가 선진과학기술을 배우는데서 1번수가 되고있다.

잠새워 새로 나온 과학기술지평들과 도서들을 탐독

받시건이 전부이지만 그는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은적이 없다.

책에서 배운 지식은 일욕심으로 이어지고있다. 조준남동무의 남다른 지식욕은 한평생군들과 종업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되고있으며 그의 일욕심은 기업발전의 열성사업과 혁신을 위한 투쟁의 혁신적정신으로 분출되고있다.

하면서 지식을 더 넓혀, 더 깊이 다져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선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가는 그의 노력은 종업원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현재나 새것을 지향하는 진취성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 민족을 모르는 탐구정신을 지닌 그의 모습은 얼마나 돋보이는가.

기계제작에 필요한 새로운 형

다들 창안하고 있어 사재와 탐구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학력이 문제입니까. 훌륭한 스승이 우리곁에 없습니까.》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손에 쥐여져있는 책을 들어보이며 그가 하곤 하는 이야기이다.

리 신 향

# 대가정의 룰리, 미덕의 향기

## 존경받는 인민보안원

지난해 12월 31일 저녁이였습디다.

꽃밭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락방구역 인민보안서 이태단위 인민보안원 김성진동무가 서있었다.

내가 찾아온 영문을 몰라 이해하지 그는 나보다도 많은 할머니가 손자들을 키우느라 힘들겠다고, 새해를 앞두고 마음부담은 그 애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는 당파유류와 학용품들을 꺼내놓는것이였다. 그리고 그는 저의 손자들인 은철이와 은일이의 손목을 꼭 잡고 새해에 도 건강할 몸으로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는것이였다.

## 한 식솔이 되여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저와 한식솔처럼 지내는 우리 인민보안원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날 저는 갑자기 병상태가 악화되어 자리에 누게 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인민보안 손금옥동무

## 감사의 인사

제가 영애군이라고 극진히 대해주는 사람들에겐 김효의 동무를 비롯한 친내군인민위원들이 애대한외의 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여러해동안 아무런 시발이 없이 저와 저의 가정을 친혈육의 정으로 극진히 대해주었습니다.

10년이란 장안이 변한다고 하지만 저를 위해주는 이들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습니다. 자주 저의 집을 찾아와 빨간색 펠이치지 않았는가, 애로되는것은 없는가 알아보고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도와주곤 하는 이들의 모습은 꼭 다스린 어머니같은 모습

## 각각 2등과 3등을, 너자 경기에서는 평양시가 1등을, 함경남도, 강원도가 각각 2등과 3등을 하였다.

또한 평양시가 종합 1등을, 함경남도, 강원도가 2등과 3등을 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인간수양과 전화례절

말하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듯 사근사근하게 례의법절을 깎듯이 지키며 전화를 하는것이였다. 송수화기를 놓을 때에조차

말하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듯 사근사근하게 례의법절을 깎듯이 지키며 전화를 하는것이였다. 송수화기를 놓을 때에조차

## 말없는 스승, 생활의 길동무

말하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듯 사근사근하게 례의법절을 깎듯이 지키며 전화를 하는것이였다. 송수화기를 놓을 때에조차

## 말없는 스승, 생활의 길동무

말하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듯 사근사근하게 례의법절을 깎듯이 지키며 전화를 하는것이였다. 송수화기를 놓을 때에조차

## 말없는 스승, 생활의 길동무

말하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듯 사근사근하게 례의법절을 깎듯이 지키며 전화를 하는것이였다. 송수화기를 놓을 때에조차

## 전국 바둑 애호가 경기 진행

각각 2등과 3등을, 너자 경기에서는 평양시가 1등을, 함경남도, 강원도가 각각 2등과 3등을 하였다.

또한 평양시가 종합 1등을, 함경남도, 강원도가 2등과 3등을 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대중체육활동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 반파계급의식을 높여 주여

로산군 백화리에서 미제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한 주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반파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신문독보, 계급교양자료해설을 정상적으로 고강이 진행하면서 당세보에서, 선동원들이 전투원정에서 계급교양사업을 심화있게 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계급교양자료들을 직관성있게 전시한 교양거점을 잘 꾸려놓고 계급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 금메달에 비낀 력사의 진리

는 하나의 열망을 안고 결승선으로 제일먼저 들어온 손금정 선수는 자기를 일본사람으로 알고있다는 판공들앞에서 수직감에 몸을 떨었다.

진보적인론인들은 신문에 손금정의 사진을 내기에 앞서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장치를 단행하였으며 또 어떤 잡지들은 시상대에 오른 선수의 다리만을 찍은 사진을 내고 올림픽경기대회 마라손경기에서 1등한 손금정의 다리라는 력사에 없는 실명을 달았다.

공자무도한 일제는 여러 판계자들을 검거하였고 해당 신문사들을 정간시키거나 폐간하였다.

나라없는 체육원의 금메달은 그자신에게도 민족성원들에게도 기쁨과 자랑도 다 놓을수 없었던 것이다.

말하지 않는 지난 세기 우리 나라 력사에는 수난당한 민족의 슬픔을 사무치게 새겨준 하나의 금메달이 있다.

1936년 도이힐란트에서 열린 제 11차 올림픽경기대회 마라손경기에서 1등한 손금정이 받은것이다.

우승한 손금정은 시상대에 올랐으나 그의 가슴에는 자기 나라 국기가 아닌 가중스러운 침략자의 일장기가 새겨져있었다. 조선민족의 영예를 떨치려

## 말없는 스승, 생활의 길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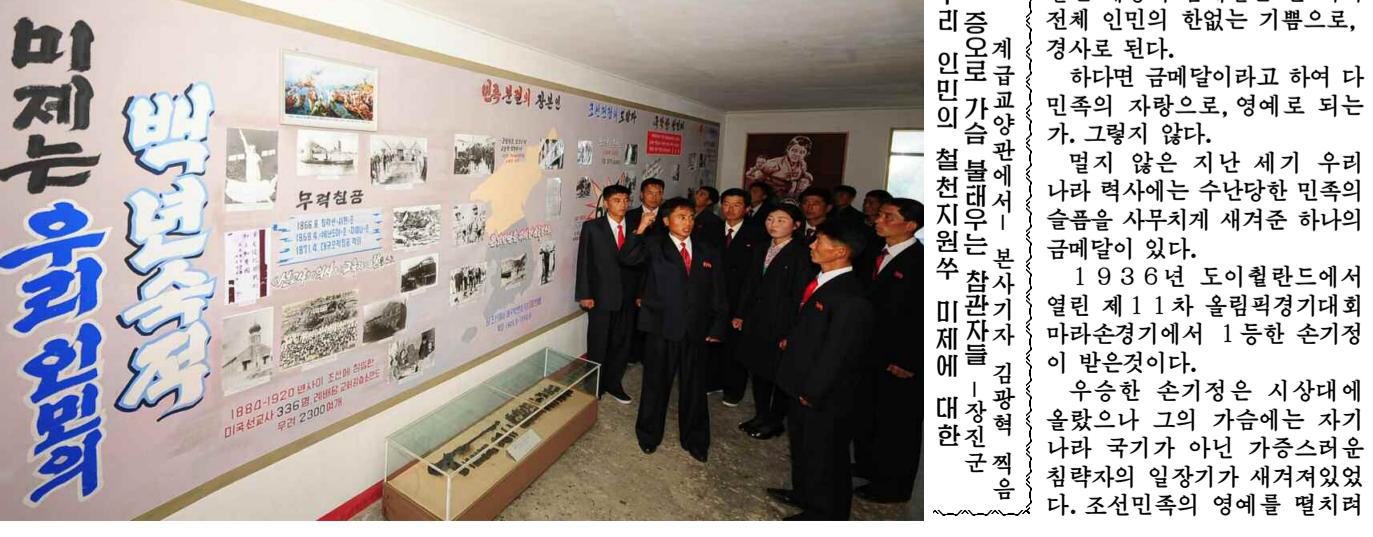
말하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듯 사근사근하게 례의법절을 깎듯이 지키며 전화를 하는것이였다. 송수화기를 놓을 때에조차

## 말없는 스승, 생활의 길동무

말하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듯 사근사근하게 례의법절을 깎듯이 지키며 전화를 하는것이였다. 송수화기를 놓을 때에조차

## 말없는 스승, 생활의 길동무

말하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듯 사근사근하게 례의법절을 깎듯이 지키며 전화를 하는것이였다. 송수화기를 놓을 때에조차



## 미제는 우리의 인민의

우 리 중으로 계급교양판에서 반파계급의식을 높여 주여

로산군 백화리에서 미제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한 주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반파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신문독보, 계급교양자료해설을 정상적으로 고강이 진행하면서 당세보에서, 선동원들이 전투원정에서 계급교양사업을 심화있게 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계급교양자료들을 직관성있게 전시한 교양거점을 잘 꾸려놓고 계급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